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월 26일
(월요일)

북부신문 7면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현장 활동 실시

미아4구역 아파트 공사현장 횡단보도 이전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는 지난 20일 특별위원회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원처리 특별위원회에 민원인이 방문해 미아4재개발구역 '꿈의숲 롯데캐슬아파트' 공사현장 출입구 옆 횡단보도 이전과 관련해 시공사측과 인접주민간의 이해관계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집단민원 확인 차 구청 교통행정과장, 담당주무관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현장에 나온 10여 명의 민원인들은 횡단보도 이전 결정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하면서 횡단보도 이전을 강력하

게 반대했다.

박문수 의원과 강선경 의원은 현장에 함께 참여한 구청 관계자에게 횡단보도 이전과 관련해 그 간의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횡단보도 이전에 대한 관찰기관인 경찰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이전 결정 과정 등 문제점에 대해 내용을 확인 한 뒤, 쌍방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시공사측과 인접 주민 간에 합의 후 횡단보도를 이전토록 요구했다.

이어서 박문수 의원과 강선경 의원은 작년 연말 추경예산을 확보해 올해 1월 12일에 준공된 강북구 오휘로 21길에 신설된 당진슈퍼 마을버스정류장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은 "그 동안 마을 버스 표지판만 있던 자리에서 마을버스



▲ 민원특위의 박문수 의원과 강선경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나 눈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박문수 의원은 "민원처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시사프리 12면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실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는 지난 20일 특별위원회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원처리 특별위원회에 민원인이 방문해 미아4재개발구역 '꿈의숲 롯데캐슬아파트' 공사현장 출입구 옆 횡단보도 이전과 관련해 시공사측과 인접주민간의 이해관계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집단민원 확인차 구청 교통행정과장, 담당주무관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을 경청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에 나온 10여명의 민원인들은 '횡단보도 이전 결정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횡단보도 이전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횡단보도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박문수 의원과 강선경 의원은 현장에 함께 참여한 구청 관계자에게 횡단보도 이전과 관련해 그 간의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횡단보도 이전에 대한 관찰기관인 경찰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전 결정 과정 등 문제점에 대해 내용을 확인 한 뒤, 쌍방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시공사측과 인접 주민간에 합의 후 횡단보도를 이전토록 종용했다.

이어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박문수 의원과 강선경 의원은 작년 연말 추경예산을 확보해 올해 1월 12일에 준공된 강북구 오휘로 21길에 신설된 당진슈퍼 마을버스정류장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그 동안 마을버스 표지판만 있던 자리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나 눈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구의원들의 노력에 감사했다.

이에 박문수 위원장은 "민원처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부위원장이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미아4재개발구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위

횡단보도 이전 대립 “원만한 합의를”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은 지난 20일 미아4재개발구역을 방문해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원처리 특별위원회에 민원인이 방문하여 미아4재개발구역 ‘꿈의숲 롯데캐슬아파트’ 공사현장 출입구 옆 횡단보도 이전과 관련하여 “시공사측과 인접주민간의 이해관계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 교통행정과장, 담당주무관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현장에 나온 10여명의 민원인들은 횡단보도 이전 결정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횡단보도 이전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횡단보도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현장을 방문한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부위원장은 그 간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횡단보도 이전에 대한 관할기관인 경찰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전 결정 과정 등 문제점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 한 뒤, 쌍방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공사측과 인접 주민간에 합의 후 횡단보도를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아 전했다.

이날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부위원장은 또 지난해 연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1월12일에 준공된 강북구 오현로 21길에 신설된 당진수퍼 마을버스정류장 현장을 방문했다.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실시

현장에 나온 10여명의 민원인들, 주민의 의견 청취 않은 횡단보도 이전 반대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은 지난 20일 특별위원회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원처리 특별위원회에 민원인이 방문하여 미아4재개발구역 ‘꿈의숲 롯데캐슬아파트’ 공사현장 출입구 옆 횡단보도 이전과 관련하여 시공사측과 인접주민간의 이해관계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집단민원 확인차 구청 교통행정과장, 담당주무관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현장에 나온 10여명의 민원인들은 횡단보도 이전 결정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횡단보도 이전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횡단보도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박문수 의원과 강선경 의원은 현장에 함께 참여한 구청 관계자에게 횡단보도 이전과 관련하여 그 간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횡단보도 이전에 대한 관할기관인 경찰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전 결정 과정 등 문제점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 한 뒤, 쌍방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공사측과 인접 주민간에 합의 후 횡단보도를 이전토록 종용했다.

이어서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박문수 의원과 강선경 의원은 작년 연말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1월 12일에 준공된 강북구 오현로 21길에 신설된 당진수퍼 마을버스정류장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은 “그 동안 마을버스 표지판만 있던 자리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나 눈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고 말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구의원들의 노력에 감사했다.

이에 박문수 위원장은 민원처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